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산업화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1965년 이후 다국적 기업으로의 전환

이 편 제II장에서 살펴본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와의 분리는 초기 전략의 전제를 없애 버렸습니다.[1] 도시 하나가 국내 시장만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결정책은 이미 군도와의 교역을 끊어 놓았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자체 관세를 가진 별개의 국가였습니다. 정부는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위해 생산하고, 그 시장에 대한 접근을 장악한 기업들, 실제로는 미국, 유럽, 일본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돌이켜 보는 것만큼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에 새로 독립한 많은 국가는 다국적 기업을 의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외국 자본을 식민지 착취와 연결하여 국유화나 보호받는 국가 대표 기업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국내 정치에서도 노동운동가 제임스 푸투체리(James Puthucheary)는 국가가 전략적 중공업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투체리는 빈세미우스를 확고한 민간기업 옹호자로 기억했습니다. 스톨링아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고켕스위가 이 고문의 견해를 공유했음을 보여 줍니다.[2]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이 도시에 자국 산업가를 길러 낼 시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국 기업은 자본, 기술, 경영,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을 가져왔습니다.

1967년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홍콩의 투자자들이 투자 약정을 늘렸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은 1967년 홍콩 폭동으로 수백 개의 홍콩 기업이 더 안전한 거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EDB는 뉴욕에 사무소를 열었고, 이 사무소는 4개월 만에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약 100건의 문의를 받았는데, 그중 다수가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잠재적 투자자의 신청 건수는 1967년 1,174건에서 1968년 1,300건으로 늘었습니다.[3]

개척산업 지위와 1967년 경제확장인센티브법

조세 인센티브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수단이었습니다. 1966년 한 해에만 신규 등록 기업 26곳이 5년간의 조세 면제 기간과 함께 개척산업 지위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완전 가동 시 19,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967년 입법부는 1959년 조례를 경제확장인센티브(소득세 감면)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ct)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법은 인센티브 관련 법을 통합했고 이후 인센티브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6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4]

이 법의 구조는 발전국가의 논리를 반영합니다. 장관은 특정 산업과 그 제품을 개척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후 회사는 개척산업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개척 기업의 감면 기간은 총 1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5] 따라서 이 인센티브는 재량적 혜택입니다. 회사와 정부 기관이 사안별로 협상하며, 정부 기관은 투자, 고용 또는 활동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EDB에 강력한 협상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와 국가의 관계를 계약적 동반자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970년대 말의 한 관료는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을 간단한 산수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1980년 국제조세회의에서 법인소득세율이 40%인 상황에서 과세의 제1정리는 "적을수록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의 40%는 0이기 때문입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다.[6] 국가는 신규 투자를 아예 유치하기 위해 그 투자에서 나올 세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투자가 창출할 임금, 공급업체, 그리고 장래의 과세 대상 이익을 기대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전자산업 클러스터

196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의 진출은 EDB의 창업 신화가 되었습니다. 리셴룽이 1991년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현지 근로자들이 전자 조립 라인에 필요한 기술과 규율을 갖추었는지 의심했습니다. EDB 직원들은 방문단을 가발 공장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가발에 끈기 있게 꿰매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얻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사업 약정부터 첫 반도체 생산까지 50일 만에 마쳤습니다. 1969년 7월 4일 공장이 공식 개소했을 때 이미 1,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7]

미국의 내셔널 세미컨덕터(National Semiconductor),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페어차일드(Fairchild),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히타치(Hitachi), 필립스(Philips), 지멘스(Siemens) 등 다른 반도체·전자 기업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톨링아는 린다 림(Linda Lim)의 연구에 근거하여 그 성과의 규모를 제시합니다. 1975년에는 전자 기업 91곳이 산업 노동력의 5분의 1인 46,247명을 고용했고, 1980년에는 185곳이 71,727명을 고용했습니다. 1991년 무렵 싱가포르는 세계 윈체스터 디스크 드라이브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리셴룽은 이를 "EDB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경쟁우위"라고 불렀습니다.[8]

투자에 이어 훈련이 뒤따랐습니다. EDB는 인도의 타타(Tata), 롤라이(Rollei), 브라운 보베리(Brown Boveri), 필립스와 함께 훈련 센터를 세웠고, 이어 일본–싱가포르, 독일–싱가포르, 프랑스–싱가포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독일 카메라 제조업체 롤라이와 필립스는 1970년대 초 이 센터 가운데 두 곳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이 센터들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다국적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기업 공장의 일자리에 맞게 훈련시켰습니다.[9]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그 존재를 활용해 현지 역량을 쌓는 이 방식은 EDB 방법론의 항구적 특징이 되었습니다. 제J편 제IV장에서 그 후속 인재 프로그램을 살펴봅니다.

1968년의 조직 개편: EDB, JTC, DBS

성공은 경제개발청에 과부하를 안겼습니다. 1968년 정부는 그 기능 중 두 가지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했습니다. 오늘날의 JTC 코퍼레이션(JTC Corporation)인 주롱타운공사(Jurong Town Corporation)는 1968년 6월 1일 설립되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를 넘겨받았습니다. EDB의 산업 금융을 넘겨받기 위해 1968년 7월 16일 설립된 싱가포르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ingapore)은 1968년 9월 1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10] EDB는 투자 유치를 핵심 업무로 유지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은 지금도 싱가포르 경제 행정을 형성하는 분업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 기관은 입지를 판매하고, 다른 기관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며, 세 번째 기관은 사업에 자금을 댑니다. 각 기관은 자체 설립법, 예산, 경영진을 갖춘 법정위원회(statutory board)로서 부처의 정치적 지휘 아래 활동합니다. 이 모델 덕분에 정부는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상업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또한 이어지는 장들에서 살펴볼 금융기관들의 길을 닦았습니다. DBS는 제D편에서 다루는 3대 현지 은행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같은 해에 개설된 역외시장은 이 편 제IV장의 주제입니다.

주

1. SG101, “1959–1965: Early Economic Strategies”, 앞의 문헌: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됨. ↩
2.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224면, J. J. 푸투체리 구술사 인터뷰(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릴 10) 인용. 이 인터뷰에서 푸투체리는 빈세미우스가 “was very much a private enterprise man”이었다고 회고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28–329면, Chan Chin Bock, "Romancing the American MNCs", Chan Chin Bock et al. (eds), *Heart Work*, Singapore, 2002, 32–53면 중 44면 인용. 홍콩 기업들의 "relocating their operations to Singapore to get away from the strikes, the bombs and general chaos"에 관하여;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29면, Lee Soo Ann, *Industrialization in Singapore*, 63면 인용. ↩

4.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28면, EDB Annual Report 1967 인용; Speech at the sixth International Tax Conference, 1980년 2월, 앞의 문헌, 3면: "In 1967, the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ct was passed to replace the earlier legislation and to consolidate the laws.";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ct 1967, Singapore Statutes Online에서 lawplayer.com에 전재된 본문(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n operation from 15 December 1967". ↩

5.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ct 1967, s. 3–s. 6, lawplayer.com 전재 본문(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 4(개척산업의 승인), s. 5(개척산업 증명서), s. 6(1) 및 제3항(감면 기간은 총 "not exceeding 15 years"). ↩

6. Speech at the sixth International Tax Conference, 1980년 2월, 앞의 문헌, 4면: "40 per cent of zero is zero, 40 per cent being the Singapore income tax rate on corporation profits". ↩

7. Speech by BG Lee Hsien Loong, 1991년 8월 1일, 앞의 문헌, 3면: 이 사업은 "got off the ground within 50 days flat, from date of project commitment to the production of the first batch of semiconductors and integrated circuits in Singapore";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29면: 1969년 7월 4일 직원 1,000명으로 공장 공식 개소. ↩

8.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29면, Linda Lim, *Trade, Employment and Industrialization in Singapore*, Geneva, 1986, 87면 인용; Speech by BG Lee Hsien Loong, 1991년 8월 1일, 앞의 문헌, 10면: 싱가포르는 "the dominant producer of Winchester disk drives in the world, accounting for more than 50 per cent of world output"이었음.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9. Speech by BG Lee Hsien Loong, 1991년 8월 1일, 앞의 문헌, 9면;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22면 및 378면. ↩

10. Wikipedia, "JTC Corpo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8년 6월 1일 주롱타운공사로 설립; SG101, "Jurong: From Swamp to Suburb", 앞의 문헌: 그 임무는 "later passed to Jurong Town Corporation (JTC), which was set up … in 1968"; Wikipedia, "DBS Bank"(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EDB의 산업금융 업무를 넘겨받기 위해 1968년 7월 16일 정부가 설립했으며 1968년 9월 1일 영업 개시; Wikipedia, "1968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